

사람들은, 여러가지 기호품을 즐긴다. 담배도 그 기호품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연기와 냄새는 참기 힘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자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물론 나도 이 의견에 찬성한다.

하지만 아마도 누구에게든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듯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담배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그 점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라도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이야기와는 다르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밀폐된 전차라든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방안에 가득차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된다.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연기를 마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조금 과장 생각이 아닐까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담배의 상업광고마저 텔레비전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담배 광고가 어린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왜 술 광고는 방송해도 괜찮은 것인가? 광고는 흡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되지만 흡연자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광고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담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